縮長日化・條準의 ツヨ 亡 整軍 會足 中學 二 約 에 比 中 吳 가 兵 司 當 을 率 () コロ の 能

世界 年0億0 는ㅇ 의 不。 可動 避。 业0

賠

「終する」 (足私電)

十下中議

一時半割期的一大招請國別一大選請國別と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廣室の以上、大原室の以上、大原管の以上、大原管の以上、

的의서十麼

調調開時史

印印會五的

는로

後餘司司

十裕り 気時

時典はいる。時代の

開기各八議

対・表力・

治的

責任

七年の

로 고 함

日本 會 議 M

スの中 九日 の前公馬開から 決定一、獄逸の三十 【豆吐電】 一、獄逸の三十 【豆吐電】 一、獄逸の三十 【豆吐電】 **6債金後行れ** 「関三十億円 「利三年乃」 한 서 이 바 _ 다 小 獨 함 라 至 之间的公 有可 公 復 於 合 行 合 行 合 行 로을

決定

四、發生 o}

수의眞하言인에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의界世來以戰大

> 題 前後二十三日吐納協定成立

01

席時協早最 式音하分調 **音無고부印** 完事막日을 上間定司終 小延內總協 의에列目訴하도聲此國 時法大車이하야雄明量代

引依十 이하라 히야이

ム 現 前

億

買上方法을左와가司改正하【東京電】大藏省에分辷産 法 있改別하다訂會야

コ金 司見に会明に か電

語

6

本文五

西

로 잔 報

戰債問 瓸 心丘有望

喜

政府로メー 一、歐洲諸國과의戰門が中、米國務省の分別を中、米國務省の分別 盛頓의 反響 り 何

(下、口徑穴 基準排水量

級十分二書加<u>寸</u>之對米電信賣售

延

114

議長

反報告

【巴里電】佛下院의七

H

失業_

決 意 正 認り

建共産業 활동도교묘하巫법위 間倫槃学が 도광버

不遠檢事局送致

지를 하라는 등지를 사업을 최후로하고 사업을 최후로하고 무건 사인식을 등경

전 북평에 있었스나 김소의 사이업습으로 4

의원회 경찰부에 발각이되면 알수가 온 각지에이면나 배구에서학 榴彈) 을띤지면 폭파되면 운 당상 그 원선각지에 조회를하는한을 중심으로한 적세분사건으 마일봉수비대는 라법교하(拉 등장대 등을 조 고 있는 중이였는데 목단심이 전하자 여기단서를 참다가 또 한 공항하여 있다 이로 말미아 이 환경 조 고 있는 중이였는데 목단심이 전하자 여기단서를 잡다가 보면 판가 보면 한 경찰부에 반자한 의 경찰부에 발한함로 각학생기택수세을 하다가 또한 기원은 함께 의 경찰부에 발한하는 조 고 있는 중이였는데 목단심이 전하자 여기단서를 잡기되자 약 한 원본이 등장하였다 이로 말미아 이 양이며 철도록과게소도 상당 기계되자 건 기의선통 건기하게 된것이다 양이며 철도록과게소도 상당 이에 되는록과게소도 상당 이에 의 기계를 함께 하는 경찰 이 있는모양이다 또한 공본선에 (전) 기계를 함께 기계를 함께 기계를 함께 기계를 함께 기계를 함께 기위를 함께

O

러

भ

限

핛

메

退治

の依む면

中丛芳香油墨噴霧器로 学司の依お田 世代退治の小な前

發生是防止

에난호아 류치를시켜노코 가위 불면행하야 이제야 그단락을 내게되어 그단박을 내게되어 그단박위반(法安維持違反) 출판범위반으로 넘기리라한다

그린데 대구경찰서와 경북경찰부고등과에서 이사건의관계자를 빈던동안이나 각지로 다니면서 맹렬히 검거를하게되자 컨조선각도 경찰부에서도 나도 나도 참고 가위서로 경쟁적으로 검거하기시작하야 아즉도 검거를 게속하고잇는증인데 현재 컨복친주(全州) 경남부산(釜山) 황해도해주(海州) 합남합황(咸興)원산(元山)홍남(與南)기라 경북김원(金泉) 경남마산(馬)의당(宜寧)금해(金海)등 각지에서 검거되어잇는 사람만으로도 벌서 오백오십여명에 달한다는데 이아 루로도 이 이상더얼마나 검거될는지 알수업는바이라 한다 그리고 동사건관계자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 (女子) | | (女子) | | | | 金文玉(三) 趙福今(三)

●大邱列檢舉取調名關係者 慶南河東郡河東面金相称(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相称(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河東郡河東面金田石(三) 長東南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東西金田石(三) 長田石(三) 長 釜山赤色勞組委員★人艦中關係者資海信川郡信川面本全北全州邑全金会会

一會是

知虚上町町 谷南南 面面 朴 濟(天) 科斯愈(三) 姜李李韓金安 周 中性 中在致 周 劉衍仙鳳鏞均極 爀

朝鮮共產黨

동명선합법적출판발행 全선서는팝프레 三출판 鬪

등지들과북평에 리종림만귀국활동타 7

ボ 不 를 出

石道ュ代

表派遣

9月日ーロースとは、ここの

으로

(慶南河東 总

루 중일 어본

인식(徐仁植)은 안에 달즈

을로 집 작 하 야

(東) 사이식은 리종림 (李宗樂) 소문에 로등조합문에(新幹會)해 성당에 기로 담당 생채續罷業問題)등의『팜푸렛 산주、 주는의 적으책자를발행하였다 대구를 삼道기 지은책자를발행하였다 다구를 삼道기 연이원에 경기도 김포(金浦) 역가 조선공산당재건동맹(朝 최한후 공산당재건동맹 공산 최한후 공산당재건동맹 공산 최한후 공산당재건동맹 공산

追間接 ・

衣類什器等을더럽힐日母가업全部即死한다。ユ리고자리와

成績不良む

京城府納稅

는 그 조지되면 교묘하기 된

不正金組理事

婦人病藥王 高貴藥配劑 人 振

병을 꼭낫기하고 가장무서운병 기자 기하고

國的

0

라은녀

표된

慶 慶 全 成 同 京畿 道 代 表 表 表 表

衡祚狄赫榮燮林

高氏連絡杜絕足

잇슨후 처음으로 세몽한것을 보면 대구에서는대)사건등이며 기미소요를 이르킨것이다 각지에서할서 이러난케대반케(帝모든것이 직접간접으로 문제서 이러난 동맹과업과의(迫間農場小作爭議)사건동 지 조선 盟罷事件)과 박간등장소작쟁 전되용 상사람을 돌나기한 양산동민 전 의 등의사건 (釜山朝鮮紡績會社)이 조선왕의회사(전) (왕山農民組合)

金山府草梁入

貨物

簡易む食事外大小宴會なりいころ

서출장하야 동·

(特約店募集)

振替盆

山五八八八

女神丸支店

商店

目三番地

다 경부내신양리 (解倒)하고어다 경부내신양리 (府內新陽里)도 경부내신양리 (府內新陽里)

琝 巻 り 수 사

電話本局

六五 〇七

三食

番堂

月

動金

대는

丑

방동지도

趙載豊等

로의사 ٥

철도폭파게 ち
り
ト
こ 刘出

京城寬勳洞自午前八時

五七 至午後八時

各地警察

주모권

형의잠저으로

로搜索

智異

山町

被逮

路市口早七市

쳇포한것이다

화당을 하기된 기관지를

대 전 형 반 판

의 대표 회 구 자 를 에 를

정부권

최로(赤蘇)의 엄명을 바다 에 불복하야지난 이일경성복 자기고 조선〇〇지방의 철교 심법원에 공소를 하얏슴으로 가게포된조재풍(趙成豊)외사 분에 친진서원의 호송으로경 마은 그긴정진(清津) 지방법 청에 도착되며 즉시서대문령 원에 또 유죄의판결을 방고이 무소에 수용되였다 라 를

戦死者輸送中의 軍用列車号爆破

發覺은

한려고 급반사건의 단វ를 된조선 이다구당이 편집을하여 등사판으로 실도선 (吉敦線) 부근육가자 양병원 (東洋病院) 에수용하 장등의 동맥과업선동협의로 수색하 수백부를박역번『콤뮤니스트』(六家子)와오가자(五家子)에 역스며 또한지난팔일 색벽에 속부산광찰기에 모두공 어대구당이 편집을하여 등사판으로 실도선 (吉敦線) 부근육가자 양병원 (東洋病院) 에수용하 장등의 동맥과업선동협의로 무선 보다를 가 물병이 제 일호인구호가 경명을 내명다는것은 기보한비로용형 (老爺蘭)사이에 이를 검거되었다하니 사상경찰이 복경찰 기도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도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도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도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자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본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 기본 (京鐵道) 와합남(咸南) 어니와 그후자에한 보도를집지음에 돌면우세한 최단 (城 부산보다 대구가 떠발달되었다 나는 대구가 떠발달되었다.

▲ 다 원 대 구 인물 당 대 구 인물 당 재 건 협일 가 군 건 협의 가 군 인명 및 다 는 이 회 관 기 인명 이 있다는 이 실 기 가 는 이 있다.

三(出發)一幕

(東萊郡古

기합으로 근임 구입료증수에

여 가 도 론 혹 업 이 하 시

開川

映碧江

눈물업는 선생님

授業料안낸け

11

弟子曼叫

려

주

ユ

도

先生

民や

新興東上面同胞의窮狀

◆面當局의應急策や如何

지구를받지 모바다 가 관광하으로 월여를 걸닐것이 나 다음날이 무리가 관광하으로 월여를 걸닐것이 무리는 가 가 관광하고 있는 무인 하고 있다 지 한 경 이라 하다 지 한 경 이라 의 등 자 그 등 이 경 바 지 그 도 다 지 한 경 이라 의 이 를 다 하 하 다 의 등 자 그 등 이 경 이라 하 다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이 리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한 지 의 한 다 이 한 다 지 한 경 이라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다 하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다 한 다 된 한 다 이 한 다 이 하 다 된 다 한 다 된 한 다 이 対号か可正治時不足(松等) なけん等で りおけおぐ台으로 そびの 4年最 でおぐ なみ歌(陈雨量) 려업스리라한다

알뜰む부자일か 사람을안돕는랭혈

無慈悲む

本妻の /달 로 금 엿 다

◇食後腹痛 0 弖 알게 œ

甘言

٥

え 賣

만

無依無托並處女를

徐炳寅モ釋放 池英烈等。送局

광주목포에서적화선전

踏切守

검거 선풍은 기 회를 든 LL

名勝

高下

구약한다 **교**한다 의 준

移秧狀況

鎮南浦의 怪屍 體

(勞働) 金百東

金龍吉

인듯하다고하는

Ö

ला

对

自他殺未詳

(진남포) 지난말일 오후에시 (東南浦署七 기일 경에 진남포함에는 조수 (湖기도水) 에따라 조선인남자의 시 최 (屍體) 가떠잇는것을지나는 선부(船夫)가발견하고 경찰 사에 보고한결과 경찰 사에 [진남포] 진남포에는요사이 전사하였는데 희장모 (李將模) 였는데 어나집이나 [나핫이] 하라고 색여잇슬뿐이고 그밧게 라는녀자를 한들의 안문곳이 명하는 모음자와가를 때 주은지도 무선입사사에 가량되여보이 자를 두는관계로 풍괴는말할 의는 로등자와가를 때 죽은지도 하다하며 별로밧 자를 두는관계로 풍괴는말할 의 그리고 생여깃된 하다하며 별로밧 사십사사에 가량되여보이 자를 두는관계로 풍괴는말할 의 등에 되었다.

秋邑長의専

> 이라고한다 > 이라고한다 조항원사이는 압호로보카를 보면 등의 유회도 이라고한 의로 시의 등이로 시의 등부과를 실상 (專決) 이로 시의 등부과를 실상 (專決) 하였습니다. 이것이 압회결의(邑 이 변환) 를 사람이는 이것이 압회결의(邑 이 감독관정(監督官廳)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압회결의(邑 이라고한 기를 나면 등이 원사이는 압호로보카를 보면 등이라고한다.

彦陽方が

面州

의한면민은 주목한다 이에그 등 의전성(意見書)의내용을보건의의 등 경우한사항의 은 면 제(邑面制)케이십룩조의 등 장이건

◇慶南事件에關聯된テ

申李朴三名을檢

喫하 可 보면동기에서는 대시주임이하 수 명의 형사가 건양(彥陽)방면 內 출장하야 당지 정단 신모郡八乙面金生洞) 등권실 (專某)리모(李某)박모(朴某) 田實)씨는 금반에자 긔가관리 삼인을 러고 문서를 다수 차압 暫場)을 십년만에 떠나기되해왔다는데 사건을 비밀에부 엇는데 이긔회에 특히동리빈 취알수업스나 경남각지에서 민을 구케하라고 금일봉 (金 김거되는 사건에관련이나 업 一封)을 구장하의종 (區長許 대사하고 일반은 궁금히생각한養鍾)씨에 기로권하였다 조원

고지우맨산다랑시님 四 야는리쓰듯露하요의 展

니어이아린反보 다야여주고對지景요

可劇七 三團月 大陽劇場公演第二週『司士太陽劇場公演第二週『司士十一日早司毎夕八時開演 外壁드어가 慕

切스與 場映キ 畵ネ 央館

新規事業中止

呈

海州

延長線

0

實現

最近에

が第一

ーリス、シュ ビッチ氏監督 ・ビッチ氏監督

1 を貸前待ウ

者團招待

스 수 수 수 수 수 수 용 왕 왕

氏 全十二

金文を大きます。

全般際

학생 수이를 곳치지못하고 하는 배(金性됨)의 집에 되었다. 이를 곳치지못하고 하다가 요합하고 함사에게 체포되면 방문하고 함사에게 체포되면 방문하다가 순행증이다 초의 선ケ여

(A)(10)의소성리흥종원(洪宗元)이가자긔모시 최포하야의의청(義兄)으로 차등 불상 은 지난삼일사는 답된번인의 부주의라는 배 본 평양역발리유로 된기와갓치 폭행을함시 문부근으로 등이라한다

소하려도 할곳조차 바이업시 소하려도 할곳조차 바이업시 전기 感謝안홀수업는 것이나의 지라한 보잘것입는 것이나의 조리를 기계하는 술 지하는 보잘 것입는 것이나의 조리를 기계하는 술 지하는 보잘 것입는 것이나의 조리를 기계하는 술 지하는 보잘 것입는 것이나의 조리를 기계하는 술 지하는 것이나의 조리를 기계하는 성 지하는 것이나의 지하는 것이 지하는

차 비이업시 今年에 仁川바다의게 自己만쓸 年이들었다 潮水의 발리가 불수잇게된다 가장입는 것 能허허아릴수잇는 조건업는 것 能허허아릴수잇는 조수업는 보 학 두 이다 이것만 가 지원다 가장하는 보 학 두 이다 이것만 가 지원다 중에는 보 학 두 이다 이것만 가 지원다 중에는 보 학 두 이다 이것만 가 되었다.

교수잇게된다 断부러 사람의

는 조차 專정말나에게 본번의 을 연으로 라버리고 말나비를 한 그들의 얼굴과 손에 나 로보빙못할 주목 다 다

彈力은勿論 아모巴活

ス만가지고도

モ 無 現

英息かいの

の一体大社勢力量

(下格)

五月公泰陽贝해外四季侧角 四人名 四

조개잡이

하로다합니

의수분이들어

치말일입니다

쇠로맨튼

로맨트 시기는 모맨트 시기는 기가 구리 시기는 장롱하면 중독

(可認物便郵種三第)

목청이

내려도산에 다으 내기상함으로

隨

긔의

조 치

記

의

일등 날은暗明하였고 의婦女가 조개를 캐리나 의婦女가 조개를 캐리나 화를 내리 그들은 개済

> 穀物을幣는것)에서 떠 (날 穀食알맹이를 시린모아 린 보기 조개를잡어 주린 나 라마 이 말 나 나는 아이 할수

已獎息으 ユ들의 ××인나의

의 한卷의過去(感想日記)를닷데 스러는때의感想—— 매즈러는때의感想—— 자 주음그것인過去다 삼 그것

來讃美が引는 마음을 蹂躪がる キャイ 過去量別阻が고 未

古真城の

할

 \mathfrak{I}

다에이한 른노에우 역기리

안보다 衛을 유

者이다 단지

行 動い

어글

三日七 恵庭女

요 饑餓地獄의罪잡는

青年の다 ユョユ 感やコラの経中で含み

온

古은할머

百姓들에게 일괴 비 기술날이 어느날이다

아아할수잇게된 오늘을 크게생각으 아은더욱 大게감이우고 憤怒와 는 아은더욱 大게감이우고 憤怒와 는 고잇노니

旦少

그들이

生活感情量を対

아 시기상함으로 경제롭다 시기상함으로 경제롭다 기상함으로 경제롭다.

<u>낸</u>뒤

에다 의면 이

불이

여分는안이됨니다 구리는 산 는것)을 쇼린다든지 귀장하 가 구리그릇에 신것(초가

그런고로 항상

요구케됨니

(茶食)の吐喜外

으로 검취하면

多次보다도 일반

사람은 비교적 롤을만하며 되느데 이것은 여름더운째

잍

상로

불나불이 여는질성 떤옷 어떤 지작전의

者

藝

作

品

募

共鳴がブゼ 시오아우리는

中分量一致見針刀되리라고

가き處地の 있는사람

三旦出

그대로

저 어보내신

贝는바입니

早二時念

눈 이 바 목 라 면 면

새러를다듬어

一九三二年一七月六日皆町 二豊同志のダヤ

◇優秀並作品创

神謝進呈〇

新詩及童謠

長短隨意

一行十四字

行原稿紙三十枚以內

 \Box

同

一行十四字十行原稿紙八十枚以內規 程

股稅하다 수 이 수 기를 살 하는 사람이 가게 되었다. 이 이 수 기를 보게 되었다.

의 것도 구리의합국 로 구리 그릇과가를

오면.

不滅의

焰

가그한 성 지대배상 안 떠나은 할 다근로 나근로 나라

반모다름등 수 보는 등 수 보는 이 이 지 가 시 기 시

平时年中司中 小型环水分型

登世 大 知 明 知

刊量パタロと

の田地の

情輸의용학의파

그리고

思索かと智慎金

早三年かなした。 우리 さ

自然의 작삭임이

諾

가는너무건방진것가래쉬요 그러신때 대해서대답을 쓰는

가그한 54 지대배상

アンス

ト屋矢七い

本三年

辛錫仁

등하고

もで

自己의生活

閉拓がい

新文化設可

文稿作品を 夢集むいい。

交州上明하

그 보려 다나 世の豆 마이고 물을주지 안이라 대 성에이르기外지 기 기간소로 혈관파심장 기 이상의수분을 심취 각기다르 스 오열 실 기 건의자실 기 건의자실 기 한 조 중의기 장 는 물 세 위 악 음 기 지안이하는 악하기 하는것이나 모도가 모 세포는일 허먹는것이 나 또는 그 시포는일 허먹는것이 나 또는 그 에 모는길 허먹는것이 나 요 권대 니청가 다도기 인다 에르 물 을 실 만 사 건강

염병(장질부사

의

약발명

어커가는불길에 던지리다. 보고에 제진다면

다 불

海

消

이 방당이리를 빗취든

여 면

도

工 릇을선 ス 택 하 요조목

범이 완정되였다 이다이 아파하는 그

** 중일주리다이

도발명 행 행

다에

ユョお・・ユ

녹을소개합니다 식거(그릇)

대체로 대인은 하로 평균의 도 필요케되는것입니다 이업지만은 충분히 굽지못한 새료에는 하는일이앗습니다 더 웁 다 크 그 ^도 공 롯 수 기 에 중 의 ユ 버닉 우승거 샙질은베

卫

한 보장을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구슬프게떨어집

합

가 베 ㅎ 겨 나 지 오 거리 제 남 ユユ 아이베『디티먼요 아 ይ 『너이들 사과를 그껍질은 当
中
ス
ブ 고말 어 테 먹

면 면이녹아나오는 덤러가

으로 식 가는될수 있

수 대로

의문표로만 선생(시험단안을손 语 を が 생 자고이 따를 우 至 자다 난채 을 윗 꼬이 가지 아이들 입니까 이 이 나의 한 에 의 도래를 들으며 나의 한 에 의로 내용을 들으며 나의 한 에 의로 내용하는데 되었다.

등 보 생 등 기 시 는 다 가 지 수 다 가 지 수 다 가 지 수 다 가 지 수 다 가 지 수 다 가 지 수 다 가 지 가 가 지 수 다 청 부 상 쇠 으 지 로 면

산에도 **ア**スフス 들 에 되 부 르 네 이 놀도 기드 조면 이라고

산에도 새 들 삭 에 이 도 돗네

당 어지지 안고 당 어지지 안고 당 어지지 안고 당 어지지 안고 당 어디를 이라는 즉 엄의 후으로라도 되었다. 그 중을 추리다 이 보기 가는 중을 추리다 이 보기 가는 중을 수 있다. 독 동 도 관

외론 내가슴을올립

는落. 면

ジャコ ユョン에 告告上が現代的美人の 対コンゴ・만 資格の現代的美人の 対コンガル 콩죽만쑤어먹고 야말로 리 리 라 언 덕

地生命의사망을

는 我害が亡 武器プラワ 見孩의 危険性無器 (玩 哀が山み郷愛呈別 그램으로 의 悲歌

무거운새병바라이우네 교요들자생의 아이오네 하는 이 아이오니나니 이 아이오니나니 歡喜寺の



ヨヨコ 化粧むり 大人と みきり 笑話的警句 粧きいる 채 되 사지 람못 이한

处及分异

노이라는

고文 친士 다는 後銘印) 体 無愛人의 文含에 使命은 めの金みの 視印 **나文死**呈 니라 (觀察 お豆의 生命 日本 単音 呈 立

生命을

변도에사들

▲心之友第九卷第七號

用ヨリ六冊同夏休學習帳

册同六

年ヨリ同六年夏休學習帳

同六學年用マデ六冊|| 唄はヨ斗 レード習帳 ・普通學校一學|| 写지 들을 ロール水下・久吉|| コロ石하를 맹ダ

미김히를 맹外(照響) 하드

冊 멋십년의 그의기

納本

無涯生活할の 無 ひ ススヌシスの一生涯と 有愛人 十二時間의吸血을 맛치고무리를 吐하면서 어지 리히 음침한麼簡의 아구리 속으

一日生만

恶 魔がガ 무덤속으로 삼키운 蒼 러히 ▲かゞやき第十八號門脇 ▲朝鮮之工事第五號 清水

기여드 <u>永</u> △子供之友第二十二號 齋藤紋之助 ▲順天無盡時報第三十三號 ▲朝鮮酒造協會雜誌第四卷第 默留 甲三



創作短篇小說

結 (五) 는××들의사랑도 아니요

들을고 웃다가 길지못한

영다 돈을주고

▲無盡月報第五○號 秀和 吉夫 었다

▲第九囘朝鮮無盡協會々報 ▲等田商報第三號寺田 義信 ●等田商報第三號池田 忠二 第1000 成島 秀吉 同六學年用マデース 小學校一學年 コス 義信 파 다 따라서 그의지나간빗날의 자 따라서 그의지나간빗날의 더일층머리

朝鮮日報社學藝部

의 사장스러운 안해도 나다 - 만그의 사장하는 산병원 한쪽방의 생활병의 한쪽방의 생활병의 한쪽방의 의 사랑스러운 안해도로 의 무생물 (無生物)上記의 무생물 (無生物)上記 그의몸이는